

심리 기도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본래 완전한 진리의 공덕이 자신과 환경에 나타나게 하는 거울이다. -광덕 스님-

현대불교

불교하는 불교 신자신문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안선인안선인승장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1월 21일 수요일(주간) 제 344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매달 헌혈하는 불자들

“헌혈은 단순히 피를 주는 행위라 아니라 생명보시입니다. 티끌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하겠습니다.”

4~11년 동안 매달 1차례 꼴로 헌혈을 한 불자들이 화제다. 조계종 포교원에 근무하는 김한일, 성공관대 불교학살회 회장 임지훈, 인터넷에서 불교카페를 운영하는 정재준, 항공대 3학년 재학 중인 유승희 씨 등이 바로 그들

임지훈, 유승희, 정재준 씨 역시 헌혈을 의뢰하는 전화를 받으면, “내 피를 나눠주기 누군가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바쁜 일과 중에도 적십자나 혈액원을 찾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감기와 을 먹고 있다”, “빈혈이 있다” 등의 핑계로 헌혈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들 불자들의 자세는 헌혈인구가 극히 적은 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에 헌혈봉사단이 조직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개신교나 가톨릭 등과 비교해보면 헌혈 인구는 극히 미미하다. 서울 강북지역의 헌혈자들을 관리하는 동부혈역원에 따르면 2000년도 종교

이다. 생명나눔실천회에 따르면 이들의 헌혈기록은 개인당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100여 회에 이른다.

11년전 동국대 불교학살회에 가입하면서 헌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한일 씨의 경우, 헌혈을 너무 자주 한다는 가족의 걱정 때문에 혈액검사 중지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달되도록 했을 정도다. 김씨 외 이러한 일관성 헌혈봉사에 생명나눔실천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생명나눔상’과 ‘적십자헌혈유공상’을 주어 격려했다.

인 헌혈인구 7천5백여 명 중 개신교가 87%, 가톨릭이 12.2%인 반면 불교가 0.1%로 가장 미약하다. 이는 각 사찰별로 헌혈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신도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헌혈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 때문이다.

김한일 씨는 마음껏 기나름 이라고 말한다. “헌혈은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몸보신’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불자들, 특히 젊은 불자들이 적극 동참했으면 해요.”

오종욱(취재 1부 기자)

“불교문화, 관광자원의 꽃”

관광공사 선정 우수 지자체 사이트 불교유산 소개

관광자원으로서의 유형문화재 부문에서도 역시 불교문화재가 핵심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지자체 관광사이트 컨테스트’에서 베스트 5에 선정된 ‘서울문화관광(www.visitseoul.net)’, ‘충북문화관광(www.cbtour.net)’, ‘대구관광정보포털(tour.daegu.go.kr)’, ‘제주도관광포털(www.jeu.go.kr)’, ‘사이버 울산(guide.metro.ulsan.kr)’ 등에 수록된 관광정보 가운데 유형문화재 부분의

20~70%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문화의 상당부분을 불교문화가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교계에서도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 포교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불교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연계지원의 정보 관리

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들 사이트의 내용과 응용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들 사이트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버전을 갖추고 있어,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스트 5 가운데 충북의 경우는 진천·음성·충주 등 11개 지역별로 총 195개의 사찰에 대한 유물 유적, 교통, 주변관광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체 국보·보물급 문화재 가운데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산사의 겨울준비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로 산사마다 겨울 재비가 한창이다. 많은 사찰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겨울 날씨에 2~3주 빠른 김장을 담고 있다. 남양주 풍선사에서 16일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김장을 담갔다. **본신사=고영배 기자**

되살아나는 인도불교

대개종 이후 정치·사회적 큰 반향

불교병원·테마공원 추진

지난 4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개종식 이후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중흥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4월 개종식 이후 인도 유수의 민영 뉴스채널인 ‘스타뉴스’가 30분짜리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전국

의 신문들이 일제히 개종식 사진과 기사를 1면 중요기사로 보도하는 등 불교에 대한 기존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부문에까지 확산되는 등 인도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로드 붓다 클럽’ 대표 영 우디드 라즈는 힌두 원리주의 단체들의 방해로 개종식에 참석하지 못

했던 90만여명의 불가촉천민들을 위해 지역별로 개종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하르 불교도 협회(대표 카푸나 카르티 스톱)는 더 많은 천민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포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하라슈트라주 나그푸르 불교도들은 최근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을 건립하고, 불교병원, 불교테마공원 조성에 나섰다.

본신사=이지는 통신원

조계종 신도교육 본격화

13일 기본교재 고별식 열려

기본교육이 의무화된 데 이어 내년부터 전문교육 시행령이 발효되는 등 조계종 신도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는 13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포교원장 도영선님과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기본교육 교재 고별 및 신도교육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신도기본교육 실시에 들어갔다.

캠페인 선포문 낭독,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인문> 고별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포교원장 도영선님은 선포문 낭독을 통해 “조계종 신도는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의 교육체계를 통해 신도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신행상과 종단상을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날 포교원 회의실에서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신도 전문교육 시행령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한명우 기자 mhw@buddhapa.com

진각종 해일 총인

29일 추대법회

진각종총리원장 요암은 제9대 총인 해일 종사 추대법회를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총

인원에서 봉행한다. 추대법회에는 각 종단대표자와 정·관계인사등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일 종사는 지난 10월 19일 진각종 제32회 중앙총회와 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인에 추대됐다.

이경숙 기자 glee@buddhapa.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11월 : 관측사·고란사·개태사

백제불교 문화를 찾아서

반안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측사에서는 은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고려시대 회화의 석불입상인 은진미륵보살 제218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머리의 화불(化佛)이 내는 황금빛이 하도 밝아서 중국 송나라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불하면서 절 이름을 ‘관측사(觀測寺)’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문화기행에 참가하여 관측사를 참배하시면 사람의 이쁨에 걸맞는 불상의 장중함에 탄성이 저절로 나오실 것입니다.

낙화암 아래 계곡에 오롯이 서있는 고란사 법당을 참배 하고 뒤쪽 모퉁이로 들어가서 문명이 좋아 왕에게 진상했다는 악수를 맞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에 대한 불은(佛恩)에 보답코저 건립했다는 고려극락 개태사에 참배합니다.

- 출발: 11월25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 회비: 4만원(종식제)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회)

현대불교신문사

장군죽비

-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30일 출범. 군승단 창설 33년만에 조계종단 차원에서 군포교 기틀 새롭게 마련. (2면)
- ◇가산산학총서’ 세상 속으로 고전을 건너러 한국 불교의 수월 풍토를 새신한다. (3면)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해 스님·시민단체 마음 합쳤다. 산천초목이 곧 부처임을 일깨우는 계기 되기를... (9면)
- ◇우리는 지금 ‘발’으로 돌아간다. 실상사·인드라마생명공동체 환경농업교육장 개설. (22면)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개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병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하나는행비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병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